

# 나주 혁신도시 지역발전예산 1조3675억원 역대 최대

국토부, 12개 도시 예산 비교  
전년보다 29% 증가... 전국 최대  
지역산업육성 701억 늘려  
지역 채용목표 27.6% 평균 미만

### ■ 전국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실적 및 계획

계	기관 수	2020		2021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실적액	예산액	실적액		
광주·전남	17	1조642	1조3675	3033	28.5		
경남	11	9218	8922	-296	-3.2		
대구	12	2457	2068	-389	-15.8		
전북	13	1815	1939	124	6.8		
강원	13	1616	2069	453	28		
울산	9	1517	3353	1836	121		
경북	13	1377	1348	-29	-2.1		
충북	16	1010	1006	-4	-0.4		
부산	13	1004	803	-201	-20		
충남	8	756	729	-27	-3.6		
세종	19	159	167	8	5		
제주	8	40	50	10	25		

(단위: 억원·%)

올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지역발전사업에 전국 최고 규모에 달하는 1조367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쓴다.

지난해 실적보다 3000억원 넘게 증가한 금액이며, 증가폭 역시 전국 최고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는 지역발전사업에 1조67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과 전국 11개 혁신도시(충남 포함)가 지난해 집행한 지역발전사업 예산은 3조1609억원으로, 빛가람혁신도시는 33.7%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에 이어서는 경남이 9218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대구(2457억원), 전북(1815억원), 강원(1616억원), 울산(1517억원), 경북(1377억원),

충북(1010억원), 부산(1004억원), 충남(756억원), 세종(159억원), 제주(40억원) 순으로 많았다.

올해 나주 혁신도시 17개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예산은 1조367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전국 예산의 37.9%를 차지한다.

지난해보다 3033억원(28.5%) 늘어난 규모로, 12개 도시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높다.

올해 예산 규모는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어 경남(8922억원), 울산(3353억원), 강원(2069억원), 대구(2068억원), 전북(1939억원), 경북(1348억원), 충북(1006억원), 부산(803억원), 충남(729억원), 세종(167억원), 제주(50억원) 순이었다.

대구(-389억원)와 경남(-296억원), 부산(-201억원), 경북(-29억원), 충남(-27억원), 충북(-4억원) 등 6개 도시 예산은 줄었다.

올해 나주 혁신도시 지역발전예산 중 '기타사업'

분야는 2899억원으로, 지난해의 10.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역산업육성' 분야 예산은 지난해 실적 1368억원보다 51.2%(701억원) 증가한 206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관기관협력' 분야에는 전년의 2배 수준(102.7% ↑)인 155억원을 쓸 계획이다.

'지역인재육성' 예산은 지난해 실적 44억원보다 39.5%(17억원) 늘어난 61억원으로 잡았다.

'지역주민지원' 분야 예산은 45억원에서 66억원으로, 48.7%(22억원) 가장 증가했다.

단 지역업체의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지역우선구매' 올해 예산은 8424억원으로, 지난해(8830억원)보다 4.6%(-406억원) 감소했다. 나주 혁신도시 지역우선구매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다더라도, 전체 예산(1조3235억원)의 63.7%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했다.

올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들은 채용 규모가 줄면서 지역채용 목표 인원도 당달아 감소했다.

올해 13개 기관은 의무채용 대상인원 1012명의

27.6%에 달하는 279명을 지역인재로 채용 계획이다. 전년보다는 67명 줄어든 규모다.

올해 빛가람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정부 목표 비율(27%)은 넘었지만 전국 평균(28.2%)은 밑돌았다.

세종의 목표 비율이 37.5%(24명 중 9명)로 가장 높았고, 제주(32.1%), 충북(31.6%), 전북(31.1%), 울산(29.8%), 경남(28.2%)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경북(27.4%)와 충남(27.5%), 광주·전남(27.6%), 대구·부산(각 27.9%), 강원(28.0%) 등은 전체 108개 기관 평균보다 낮았다.

올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을 마련했다.

한국전력은 에너지밸리 조성과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에 힘쓰기로 했고, 한전KPS는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증진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중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구매-공급 활성화를 내걸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 e스포츠상설경기장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신입 행원 첫걸음  
광주은행 신입행원 29명이 최근 8개월 간 훈련을 마친 뒤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사령장을 받고 정식 행원 근무에 들어갔다. 송중욱 은행장과 이상욱 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AI 모의면접 시스템 운영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청사 1층에 인공지능(AI) 모의면접 시스템을 도입해 개방·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의면접 시스템 도입은 코로나19로 AI 면접이 증가하는 등 채용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에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면접체형 제공을 위한 것이다.

현재 청년들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진흥원이 운영하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잡(JOB)카페'에서 AI 모의면접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지만, 중장

년층을 위한 체험장은 없었다.

이에 따라 하남·진곡·첨단산업단지 등에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구직자를 위해 지난 6월 AI 모의면접 기틀 추가도입했다.

나성화 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채용시장과 함께 중·장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모든 취업자들이 맞춤형 훈련을 통해 취업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 오토랜드 광주, 신형 스포티지 양산 기념식

### 5세대 모델...광주 2공장 생산

기아의 대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신형 스포티지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박래석)는 7일 광주 2공장에서 신형 스포티지 1호차 양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양산 기념식은 노사가 함께 탄생시킨 신형 스포티지의 성공적인 양산을 기념하고, 힘을 모아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명차로 만들어 나가는 의미에서 열렸다.

박래석 공장장은 "신형 스포티지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환한 미래를 위한 모두의 간절함과 소망이 응축된 노력의 결과물이다"며 "신형 스포티지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형 스포티지는 2015년 4세대 모델을 출

시한 이후 6년만에 선보이는 5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광주 2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1993년 출시 후 지난 5월까지 전 세계에 613만6357대가 판매된 기아 모델 중 처음 세계 누적 판매 600만대를 돌파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또 지난 6일 신형 모델의 사전계약 첫날 계약대수 1만6078대를 기록하면서 국내 준중형 SUV 부문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85.34 (-19.87)
↑ 코스닥	1047.36 (+2.40)
↓ 금리(국고채 3년)	1.410 (-0.055)
↑ 환율(USD)	1138.10 (+8.40)

## 광주문화신협 예금 한시모집

특판시기 : 2021. 7. 5 ~ 7. 23 (3주), 한도소진시 판매 종료

# 유니온 정기예탁금 12개월 연 2.06%

(세전 / 만기해지)

1 신한이뱅크 어플 다운로드 후 조합원 가입 2 상품을 → 유니온정기예탁금 3 가입신청

# 파워 정기예탁금 18개월 연 2.0%

(세전 / 만기해지)

## 출자금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파란적금 36개월 2.0%

(은행권 전용상품) 세전 / 만기해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항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